# ‘몰라요 장관’ 임명…해빙 정국에 찬물 끼얹은 靑

## 윤진숙 해양수산장관 임명장 … 민주당 강력 반발
## 새누리당도 “‘식물장관’ 안되게 각고의 노력하라”
## 새 정부 내각은 출범 52일 만에 ‘지각 구성’ 완료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면서 해빙무드를 타는 듯했던 정국이 다시 경색될 조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 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채동욱 검찰총장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 4명은 모두 장관급으로 채 총장을 제외한 3명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그간 임명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로써 경제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미뤄져 왔던 새 정부의 내각은 출범 52일 만에 ‘지각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윤 후보자의 임명은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정국의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 박 대통령이 최근 여야 및 국회 지도부와 잇따라 오·만찬 회동을 하면서 정치권에는 대화와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처럼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에 합의하고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손발을 맞춰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윤진숙 변수’로 청와대와 야당 관계의 냉각은 물론 여야 관계 정상화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는 향후 정국 향배의 중대 분수령이 될 4·24 재·보선과 더불어 새 정부 인사 논란, 여야 간에 시각차가 큰 검찰개혁 및 경제민주화 법안 등 휘발성 높은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야당은 예상대로 윤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인사참사”, “불통 행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 임명은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두고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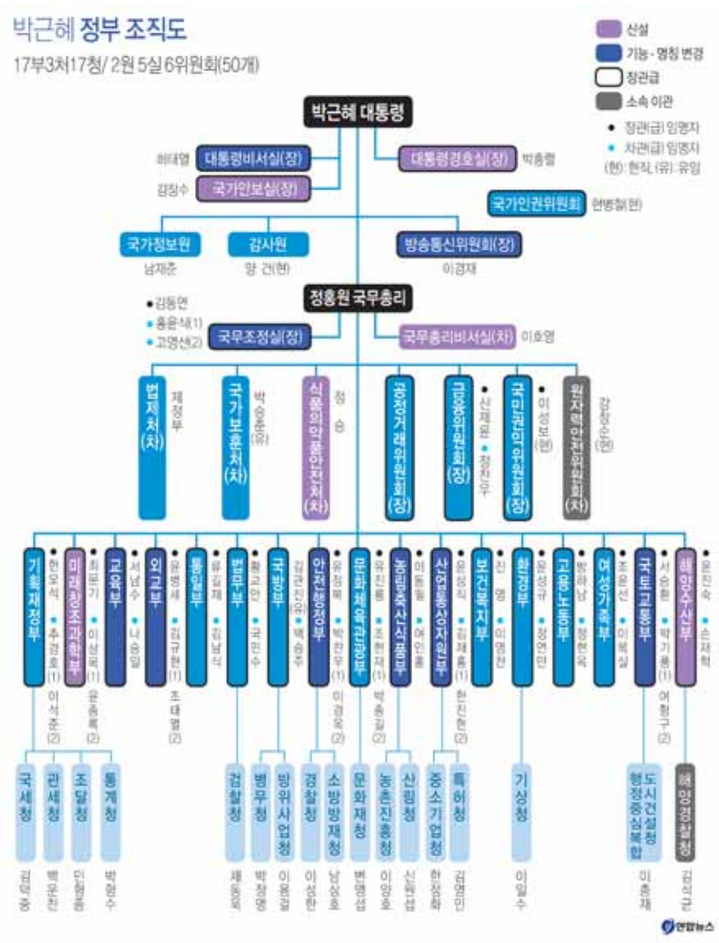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봄날이 온 줄 알았더니 또다시 찬바람이 불고 꽃망울이 터지려다 다시 꺾이는 것과 같다”면서 “정국 경색이나 인사 강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모두 청와대와 대통령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십분 존중하면서도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윤 장관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장관의 업무능력과 역량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청문회 때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재연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장관은 ‘식물장관이 될 것’이라는 당내 우려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답했는데 그런 반박이 옳았음을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각고의 분투노력으로 국민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붉디붉은 꽃봉오리 진 자리에서 새 꽃으로 피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5) 동백꽃

강요배 작 ‘동백꽃 지다’

“가장 눈부신 순간에/스스로 목을 꺾는/동백꽃을 보라/…모든 언어를 버리고/오직 붉은 감탄사 하나로/허공에 한 획을 긋는/단호한 참수/차마 발을 내딛지 못하겠다…”〈문정희 ‘동백꽃’ 중에서〉

천지가 만화방창 꽃들로 가득하던 날도 잠시, 어느새 꽃 진 자리마다 연둣빛 이파리들이 꽃만큼 찬란하다. 봄은 꽃망울로 터지지만 만개, 낙화로 무르익는다. 낙화의 절정으로 꽃봉오리째 지는 동백꽃만 한 게 어디 있을까. 주말 봄바람에 떠밀려 유명한 동백숲엘 갔다가 낙화로 붉게 물든 풍경 속으로 ‘차마’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시구처럼 처연한 느낌 때문이었다. 대신 그 풍경 위로 그림 한 점이 겹쳐왔다.

‘역사적 풍경화’로 이름난 서양화가 강요배(1952~)의 작품 ‘동백꽃 지다’. 슬픈 서사로 더 붉은 한라산 동백을 그린 그림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독립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가 제주 4·3의 역사를 다룬 것처럼 화가는 오래전 그림을 통해 한국 현대사 속에서 망각됐던 제주 4·3을 되살려냈다. 희생된 넋을 상징하는 붉은 한라산 동백이 클로즈 업 된 화면의 한 귀퉁이에 사라져가는 유격대원의 비극적인 뒷모습도 보인다. 화가는,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자리에서 새 꽃으로 피어나는 동백꽃의 낙화를 통해 새롭게 전개될 역사적 전망을 암시하고자 했다.

제주 출신의 화가 강요배는 서울대 미대를 나와 잠시 서울생활을 했으나 고향으로 돌아와 22년째 제주에서 작업해오면서 차분하고 은유적인 어법으로 묘사한 제주의 감동적인 풍경과 신화를 보여주고 있다.

풍경 뿐 아니라 화가가 그린 호박꽃, 감나무, 한 바구니의 감자에도 땅에 스민 제주의 서사가 더해져서 인지 기억의 현재성이 더욱 강렬하게 전달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윤진숙 임명 강행**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朴 “對北문제 야당의 경험 자문 구하겠다”

## 민주 이윤석 의원이 전한
## 청와대 만찬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인사에서의 호남 소외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열린 국회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청와대 만찬에 참석했던 이윤석 의원(국토위 간사, 무안·신안)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대탕평 인사를 한다고 했지만 호남 총리도 실현되지 않았고 정부 장·차관에도 호남 인사를 찾아보기 힘들어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박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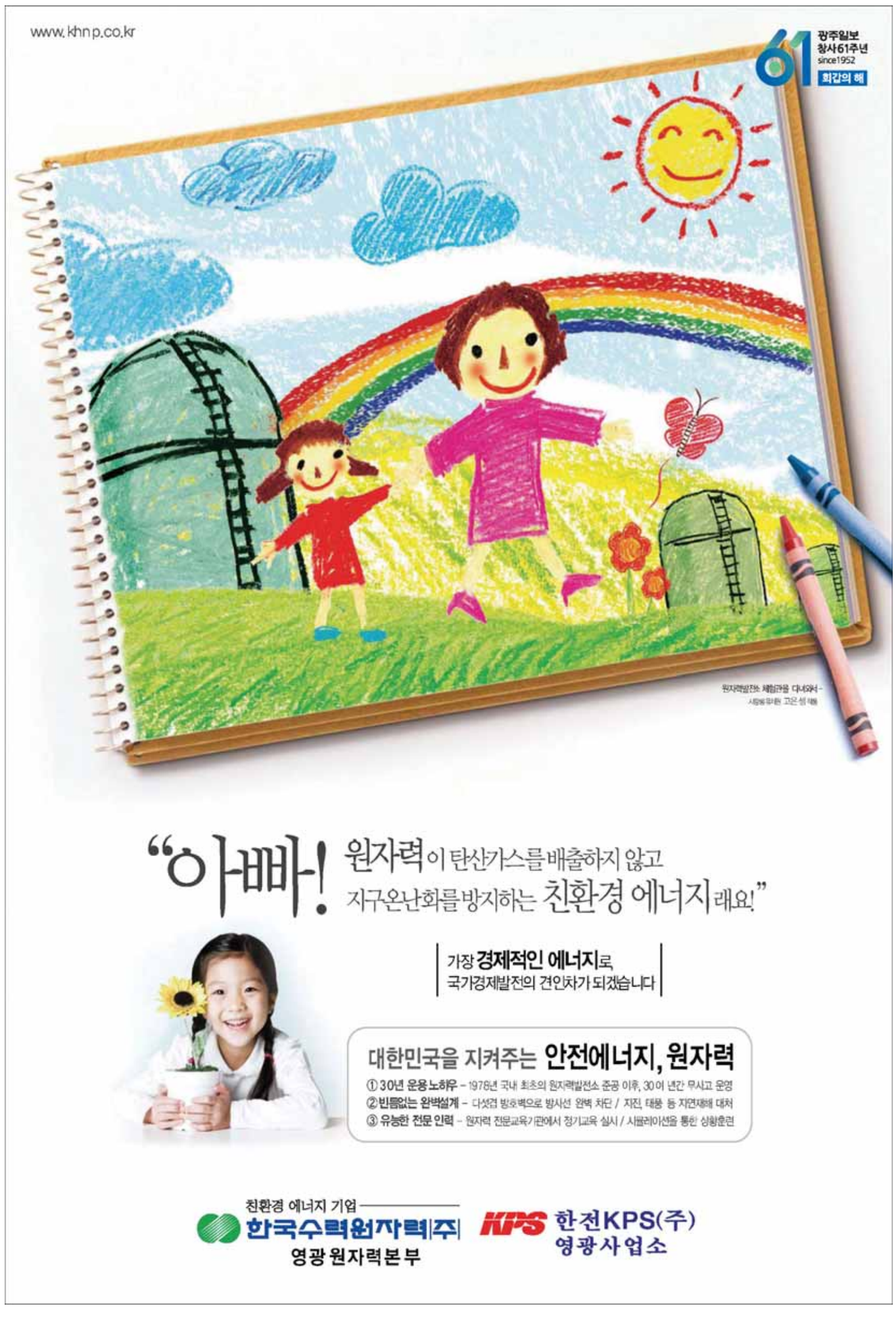
박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야당 추천 인사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반도 위기 상황 타개 방안과 관련, 박 대통령은 민주당 간사단이 “야당의 대북 라인을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기회가 있으면 야당의 경험에 대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북라인은 정보 가치가 불분명한 비선라인을 활용하지 않고 국정원의 공식라인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석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도록 한만큼 이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생지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안 ‘하의~신의’ 연도교 건설 예산도 꼭 챙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인 부산~목포 남해안 철도 건설과 관련, 진주~순천의 복선화와 순천~목포 구간 건설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만찬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당장, 당내의 대여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소통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이벤트에 들러리만 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배가 산으로 갈가 싶습니다